

오늘의 기사판

2006 광주시 결연·후원자 만남 행사

오늘 (28일)
▶2006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및 제 10회 어울마당 행사=오전 10시 여주시 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
▶제 50회 전남도 문화상 시상식=오전 11시 전남도청 정약용실.
▶2006 광주시 결연·후원자 만남 행사=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89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 설명회=오후 5시 여주시체육회 사무실.
▶제 9회 촛불의 밤 '우리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오후 5시30분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제 9회 촛불의 밤 '우리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오후 5시30분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제 9회 촛불의 밤 '우리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오후 5시30분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광주 무등파크호텔. 김대우(웅인대 교수)씨가 '생각이 바뀌면 천하가 바뀐다'를 주제로 강연
▶전남제천청, 자연정화활동=오후 1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터미널 및 5·18 기념공원 일대.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2006=개막식 오후 3시 여주시 진남문화회관. 국내 작가 69명·국외 17명 등 86명 작가 작품(회화 및 서화 등) 전시회.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2006=개막식 오후 3시 여주시 진남문화회관. 국내 작가 69명·국외 17명 등 86명 작가 작품(회화 및 서화 등) 전시회.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2006=개막식 오후 3시 여주시 진남문화회관. 국내 작가 69명·국외 17명 등 86명 작가 작품(회화 및 서화 등) 전시회.

공연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28일(목)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박인수 클라리넷 독주회 '프랑스 음악의 밤'=28일(목) 오후 7시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2006 작은 그림 나눔전=30일까지 문화갤러리.
▶한국화대전 시상식=오후 3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미진회=31일까지 무등예술관.
한국구상작가 6인 초대전=2007년 1월13일까지 상계갤러리.
미술관 카바레전=2007년 1월14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백화점에 간 미술가들=2007년 1월14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조세현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3, 사랑=2007년 1월 3일까지 롯데화랑.
백화점에 간 미술가들=2007년 1월14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조세현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3, 사랑=2007년 1월 3일까지 롯데화랑.
백화점에 간 미술가들=2007년 1월14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44. 왼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 선수가 4개월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24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차전 아스톤 빌라와 원정경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른쪽 날개로 출전해 빠른 측면 돌파와 인상적인 슈팅을 선보이면서 65분간 그라운드를 질주했습니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1호인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지성 ② 설기현 ③ 이영표 ④ 차두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에게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8일 (음 11월 9일 辛卯)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Fortune text.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49 사랑도 '삼 세판'

음악감사 김모(28)씨는 외모도 뛰어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선호하는 결혼상대자 1순위로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두루 갖췄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또한 대단한 여성이다. 하지만 맞선을 볼 때 마다 매번 남성회원들이 그녀를 부당스럽다고 말하고 더 이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해 10월 김씨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조모(31)씨를 만났다. 그 다음날 서로간에 만남 느낌을 확인할 겸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말투가 너무 차갑고, 솔직히 외모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라고 했고, 조씨도 "너무 잘난척하고, 본인이 중세 시대 공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되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 12월 중순 조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 김씨와 약혼합니다"

조씨는 다시 만날 마음은 없었지만, 첫 만남이 있던 다음날 회사 동료와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 하지 못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주말에 또 만남을 가졌던 것.

자신의 성장과정과 성격 그리고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솔직하고 진솔한 매력에 조금씩 이끌리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3번째 만남에,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었던 단점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에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다고 했다.

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단정시 여겨야 한다. 중상층 솔로에서 "자신이 왕자나 공주"처럼 보이려는 솔로가 더러 있다. 하지만 이런 솔로일수록 잘 살펴보면 '삼들이나 삼순이 성향'이 있다.

'솔로에게 50%장점과 50%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고 평온한 생각으로 주변 대상들을 바라보라. 상대의 단점 보다는 장점을 찾아보라. 이런 마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해보면 좋은 솔로는 많다.

'솔로의 50대 50법칙'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외모나 선인견으로 속단하여 당신의 천생연분이 될 '왕자나 공주'를 놓치고, '삼들이나 삼순이'를 만날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다. 누구든 이성교제 대상으로 소개를 받으면 일단 3번 이상은 만나보라. 3번이란 첫 만남의 환상과 어색함, 두 번째 만남의 추가

적인 관심, 세 번째 만남의 친근감과 매력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3번 정도 만나보면 지속적으로 이성교제를 해야 할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단이 설 것이다. 이것이 '데이트 3법칙'의 참 정신이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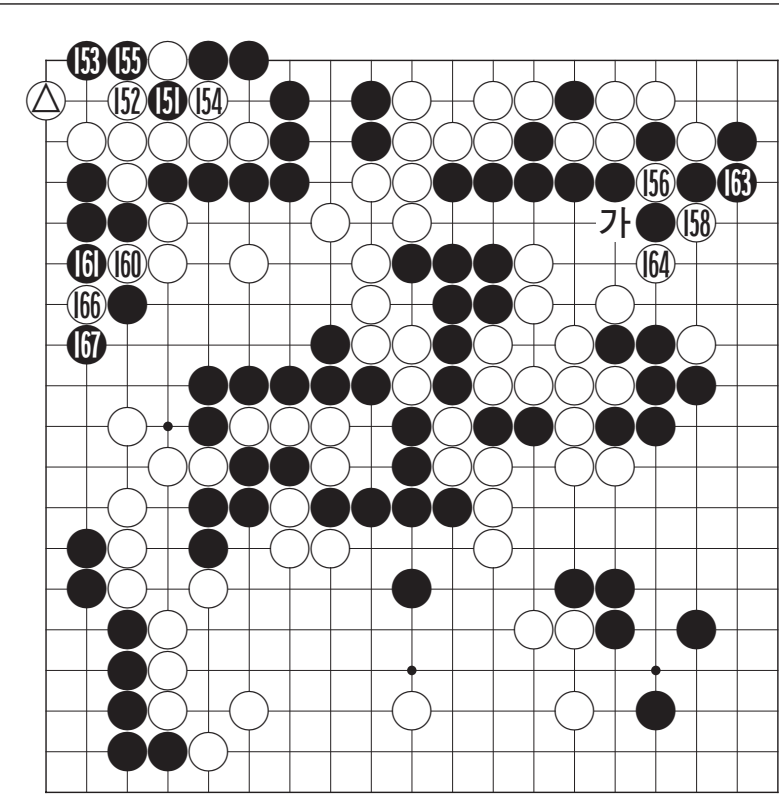
<닥스클럽(주) 대표권설턴트>

일단 3번이상 만나보라

김씨는 조씨에게 "죽방 좋아하신다고 했죠? 저번엔 잘 못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좋아해요. 우리 빨리 먹어요"라고 했고 조씨는 그 때 죽방을 먹지 말고 삼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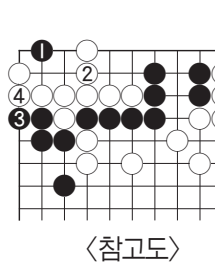
조씨도 김씨에게 "저 오늘 세련되게 보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어떤가요"라며 물었을 때, 김씨는 그리 세련되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노력해 보이는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

세상은 공평해서 모든 솔로는 50%장점과 그만큼 크기의 50% 단



제8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

백 151에 이 수로 151에



<참고도>

두번 흑이 이곳을 두어 수상전은 흑이 이긴다.

이때 흑이 '참고도'의 1에 치중하여 잡으려 하면 2에 이어 오궁도화가 된다. 오궁도화는 8수이므로 도합 9수. 수상전은 흑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흑도 151에 두고 153에 치중하여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패감

오궁도화 10보(151~168)

백 조민수 7단 (전남) / 흑 김호진 5단 (서울)

은 우변에 무공무진하다는 것이 흑의 자랑이다. 또 흑 155로 패를 걸어왔을 때 흑은 패를 하지않고 156으로 우상귀의 패를 따낸 것이 좋은 수로 승착이 되었다. 물론 바로 패를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좋지만 이기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늦추는 것이 한수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156에 흑이 받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문제. 158에 이어주거나 하면 즉각 '가'에 끊어 양패가 된다. 할 수 없이 좌상귀 패를 따내 패를 우상귀로 옮겼으나 패감부족으로 김호진 5단이 돌을 던지고 말았다. 157~151, 159-패따남, 162~156.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대만 저우 9단, 왕좌전 2연패

대만의 저우권선 9단이 지난 26일 대만기원에서 열린 제2기 대만왕좌전 도전5번기 제4국에서 천수위엔 7단을 319수 만에 백 7집 반으로 꺾고 종합전적 3승1패로 왕좌타이를 지켰다. 이로써 저우 9단은 천원전, 명인전, 동강배 등 4관왕에 올랐다. 저우 9단은 대만의 3대 타이틀 가운데 2개 타이틀(천원·왕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수전은 천수위엔 7단이 갖고 있다.

저우권선 9단의 뒤를 이어 2인자로 자리잡은 천 7단은 지난 9월 국수전 우승을 차지한 후 7단으로 승단했으며, 이번 왕좌전도전자 결정전에서 황상린 4단을 꺾고 도전권을 획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learning sections.